

2015년 4월 13일 새벽말씀

금주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지극히 핍박했습니다. 사울 뿐만 아니라 구시대 사람들이 몰라서 핍박했는데 핍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현실과,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핍박을 한다. 우리는 알고 행함으로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면역성도 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핍박을 받게 되면 막으니까 못 가게 되고, 묶으니까 못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핍박이 있어야 믿음의 본질도 더 깨닫게 되고, 핍박이 있으므로 참의 본질도 더 깨닫게 되고, 핍박으로 인해서 무지의 세계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참 무지하구나.” 그것을 모르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신앙을 자기가 못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을 당해봐야 얼마나 자기에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뛰는 실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에게 쫓기든지, 산짐승에게 쫓길 때도 망쳐 봐야 얼마나 뛸 수 있는가 자기 실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실상도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될 수도 있고, 핍박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더 발휘를 할 수도 있고, 핍박을 통해서 악인들의 실정을 더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도 핍박했던 것과 무지했던 것을 더 뉘우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금주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사를 모두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사에 예수님 시대 때에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었나? 그를 통해서 지금 제2의 역사 때는, 성약역사 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보다는 덜하지만 정신적인 핍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핍박도 있지

만 사실상은 정신적으로 핍박이 많았습니다. 심정의 십자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때는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로 잡아당기고,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실제로 닥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라지들이 실제로 잡고, 잡아당긴 사람들은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고, 반면에 정신적으로 크나크게 연단하는 기간도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지들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더 매대기침을 당하니 더 구원주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구원자를 더 찾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구원시켜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자를 통해서 잡아갈 수 없는, 흑암에서 잡아잡니다.

또 핍박한 바울 선생은, 핍박한 자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그 후에 다시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저 미안하고, 그저 과거가 부끄럽고, 그저 난처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저 괴롭고, 회심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막 다루지 말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 갖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회심을 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꼭 회심할 줄 알고, 잘못을 이야기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 바울 선생같이 잘 합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게 보지 말고 귀히 대해 주고, 그리고 잘 붙잡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바울 선생이 되

어서 열심히 복음을 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편지 복음>도 많이 뿔고, 그리고 또 <간증 복음>도 많이 뿔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뿔박하고 반대했지만 몰라서 그랬다. 너희도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나쁘다고 해서 너희도 나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다시 알아보니 까 그것이 아니더라.” 할 때에 공감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를 때는 뿔박하게 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도 모르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웃기게 모시게 되고, 또 모르면 주의 심정을 거스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을 때는 잘못했다고 회심합니다.

선생도 하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모시지만 나는 또 하늘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늘을 모시고 가는 입장들입니다.

뿔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옵니다. 뿔박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모두 바울 같은 입장입니다.

뿔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은 기존성에 있어서 뿔박하는 경우입니다. 바울 같이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안 믿으니까 모르는데 저들이 믿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청중심에 말만 듣고 뿔박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서 붙잡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고, 대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놔두면 자꾸 번져가니까 똑똑히 가서 전해 주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똑똑히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상은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접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접해본 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내가 눈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너희도 한번 체험을 해 보라.”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살 때 이 세상 것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았는가 보라.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르고 산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모른다. 우리가 알려면 그들과 같이 접해보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한 달 두 달 석

달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모르고 핍박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미 아는 기존성들이 말할 때 그것을 믿고서 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우쳐 줘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 안 하면 그가 너를 핍박하리라.” 그런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을 놔두면 계속 평생 동안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 가서 과감하게 증거했습니다. 주를 증거하고, 자기 입장을 증거하고, 그리고 현실을 분명히 밝혀 말했을 때 많은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혼자 독학해서 알려면 힘들니까 가서 가르쳐 줘라.”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깨닫고 알려면 힘듭니다. 독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무엇을 깨달아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직접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렇고이렇고 이렇다.” 하면 쉽습니다.

“기도해서 나에 대해서 깨달아 보아라. 나의 상황을 깨달아 보아라.” 하면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후에 어둠의 세계, 흑암 주관권들의 그런 놀림 속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니까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도 그냥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면 못 깨닫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들이 직접 접했던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압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옆의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럴 수밖에

에 없게 보인다.” 합니다. 이와 같이 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독학해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이야기 해 주고 하니까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 받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고쳐 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해 주면서 해 주니까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지. 그러면 사람이 막 따릅니다.

병 고쳐주면서 간증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꼭 간증하면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을 보여주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그 순간을 통해서 인정할 때 “이것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이것도 배워봐라. 이렇다.” 그러면 그때 시인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실력!

금주의 말씀이 “사도의 정신”인데 사도의 정신이 뭐고 하니,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좋은가 나쁜가를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값은 그만한 값을 주어야 할 것인가 속지 않는가 볼 것입니다. 가령 물건이 100원이면 원래는 90원만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물건 사는 법칙과 정신을 가져야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신, 기도의 정신,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정신! 정신이 혼 빠지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정신’은 바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몸이 되어서 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대신자가 되어서 행하며, 그리고 항상 주를 증거하며, 말하며, 중심하며, 그를 머리로 삼고 사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늘 의논하고 상의하고!

우리는 “사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이 시대의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바로 이 시대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시대의 ‘신랑’으로서 정신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대하는. 신부를 대하는. 항상 함께해 주고 역사해 주고.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늘 그들을 살피고 돕듯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발장구만 쳐 주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 주면 되는데 못 맞추고서, 특별히 하나님 나타나서 일해 주는 것, 특별한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눈에 티가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몸에 활이 날아와서 꽃히는 것까지 다 살피십니다. 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돕는 것을 알아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돕는 것을 알아 줄 때에 역사를 더 하십니다.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도와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들의 정신은 늘 깨닫는 정신이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일을 도와주셨는가? 어떤 것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신, 애인의 정신입니다. 애인은 부부일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해 주었는데, 왜 해

주는지 알지?” 합니다. 미워하면 안 해 줍니다. 오히려 가시를 꺾습니다. 미워하면 가시를 몸에 꺾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 준다. 도와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해 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깐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사랑해 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니깐 사랑해 준다.

늘 이런 것을, 그 정신을, 근본정신을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대의 ‘사도들’이라면 ‘주님의 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딱 갖고 있으면 몸뚱이는 항상 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신이 어디로 가는가 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정신이 아주 해이해져 버리면 책망 받고, 또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빼버리면 죽은 시체입니다.

정신이 나가있으면 죽은 시체라고 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항상! 항상 적이 온다고 생각하라.”

사도들에게는 늘 적이 왔습니다. 항상 핍박자,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막고, 울타리를 치고 방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뱀이 와서 몸을 감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뱀이 어디에 있는가 늘 쳐다보아야 됩니다. 뱀에 안 물리는 사람은 뱀을 늘 쳐다봅니다. 어디에 가도 “뱀, 뱀, 뱀. 혹시 어디에 뱀이 있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을 밟기도 하고, 뱀이 몸뚱이를 감았는데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뱀이냐? 뭐냐? 뱀장어나? 이것은 뭐냐?”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살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반대자는 있으니까. 그 개인이 아직 복음으로 오기 전에는 항상 반대, 아니면 찬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립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 버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아 버렸든지, 감옥에다 가두어 놓았든지 하기 전에는 항상 발작 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친 사람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친 사람을 다룰 때는 24시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 순간 뒤집어질지 모른다.”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미친 사람을 보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라지들도, 악한 놈들도, 나간 놈들도, 우리를 해하는 놈들도 우리 전군은 항상 전체가 쳐다보고, 근무 서고 보며 완전히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능력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정신, 하늘 신부들의 정신을 가지라.” 했습니다. 정신이 해이하면 안 되고, 정신이 빠져나가면 시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주시고, 주의 정신을 주시고, 시대의 정신을 주시고, 사도들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사도의 정신, 시대 인생의 정신, 시대 구원의 정신, 하늘의 사랑하는 자의 정신을 가지려면 배우고 듣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